

현장포커스

삼성전자, 캐논코리아비즈니스 솔루션 등 협회 회원사 8개사 수출탑 수상

제45회 무역의 날 행사 이모저모

수출기업들의 선방으로 2008년 우리나라는 수출 4천억 달러, 무역 규모 8천억 달러 시대를 동시에 연 해로 기록을 남겼다. 무엇보다 이 같은 성과가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 가격경쟁 심화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얻은 결과여서 더 값어치가 있다. 지난 12월 2일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4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는 1403개 업체가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수출에 공로가 큰 유공자 834명에게 훈장과 표창이 수여됐다. 올해는 협회 회원사인 삼성전자가 500억불탑을 수상한데 이어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재영솔루텍, KJ프리텍, 이오테크닉스, 휴비츠, 뷰웍스, 오로라라이트뱅크 등 8개 사가 자랑스러운 수출역군에 이름을 올렸다.

취재 | 박지연 기자 |

2008년은 우리나라가 수출 4000억 달러, 무역 규모 8000억 달러 시대를 동시에 연, 뜻 깊은 해로 기억될 것이다.

2006년 수출 3000억 달러 달성 후 불과 2년 만에 4000억 달러 벽을 넘는 것이다. 2008년 예상 수출전망치는 4400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18.4% 급증했다.

이 같은 수출 증가율은 세계 수출 11강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빠른 것이다. 수출 1000억 달러에서 4000억 달러까지 걸린 시간은 13년으로 중국이 9년이고 세계 10강의 평균은 17.2년이다.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 규모가 8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점도 큰 의미다. 전년 7283억 달러에 비해 1600억 달러 가량 증가한 886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수출 4000억 달러, 무역 규모 8000억 달러 시대 열어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은 매년 두 자릿수의 꾸준한 증가세



▶지난 12월 2일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500억불 수출의 탑을 받았다.

를 나타내왔다. 1964년 처음으로 연간 1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 후 44년간 4000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이는 1964년 한 해 동안의 수출 규모를 올해 들어서 1일 1시간(하루 14시간 수출 가정)에 달성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희범 무역협회장은 “최근 수출은 올해(2008년) 10월까지 2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며 변함없이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에서 IT 분야의 공을 빼놓을 수 없다. 2008년은 전년 이어 수출 10대 품목에 IT 분야에서 무선통신기기·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 네 가지가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와 컴퓨터가 국제 메모리 가격 급락 및 해외 생산 수출 확대로 인해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했지만 이들 4대 IT 분야는 여전히 한국 수출의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라는 안 좋은 소식도 있다. 지난 12월 1일 지식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1998년 이후 2007년까지 총 192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온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2007년 말 적자로 반전된 후 2008년 들어 11월까지 133억 4300만 달러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는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이 나온 결과다.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역조 규모도 지난해 10월까지 290억 달러로 연말에는 3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에는 다시 흑자국으로의 반전을 접치고 있다. 무역협회는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8.6% 증가한 4778억 달러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수입은 상대적으로 적은 6.2% 늘어난 4674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이 예상치가 적중하면 32억 달러 흑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희범 회장은 “앞으로 무역환경은 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무역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도전정신으로 대처해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데 온 힘을 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403개 사 수출의 탑 수상, 834명 유공자 포상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2월 2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제 4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증대와 무역진흥에 공로가 큰 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에는 1403개 업체가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수출에 공로가 큰 유공자 834명에게는 훈장과 표창이 수여됐다.

한국광학기기협회 회원사에서는 삼성전자가 500억불탑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이 2억불탑, 재영솔루텍이 1억불탑, KJ프릭이 7천만불탑, 이오테크닉스가 5천만불탑, 휴비츠가 2천만불탑, 오로라라이트뱅크가 3백만불탑을 수상했다.

또한 유공자 부문에서는 삼성전자 양해경 사장이 은탑 산업훈장,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김천주 사장이 철

탑산업훈장, 두산인프라코어 성정현 공장장 등 3명이 산업포장을, 휴비츠 김현수 사장 등 2명이 대통령표창, 한국후지제록스 김현곤 상무 등 6명이 지식경제부장관표창을 받았다.

■500억불탑-삼성전자(주)

삼성전자(대표·이윤우)가 수출 500억불탑을 수상했다.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년간 수출실적이 무려 542억 9515만 달러에 이른다. 차별화된 제품과 원가 경쟁력 그리고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을 펼친 결과로서 삼성 주요 사업부 모두가 선전했다.

LCD TV 부문은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시치가 발표한 지난해 2분기 업체별 점유율 실적 결과, 삼성전자는 483만 7000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 20.4%로 1위를 굳건히 지켰다. 특히 LCD TV 업계로는 처음으로 수량 기준 20%대를 돌파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매분기 점유율이 상승하며 2006년 3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 뒤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그리고 이를 주저 없이 시장에 내놓고 알린 결과다.

대표 제품을 들면 신소재와 디자인공법을 적용한 ‘크리스털 로즈’, TV에서 뉴스·날씨·주식 등 각종 정보와 유튜브를 즐길 수 있는 ‘인포링크’, 게임·교육·요리 등 각종 콘텐츠를 내장한 ‘콘텐츠 라이브러리’ 등 삼성전자는 신개념 TV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또 세계에서 가장 얇은 44.4mm 두께의 초슬림 TV, 친환경 LED 백라이트를 채택한 LED LCD TV 등 시장을 선도하는 신제품도 계속 출시하고 있다.

휴대폰 부문 역시 지난해 3분기 처음으로 분기 기준 5000만대 판매를 넘기는 업적을 세웠다. 시장점유율도 17.1%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성장(점유율)과 수익(이익률) 두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시장과 중동·아프리카·러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모두 약진하고 있어 안정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햅틱·옵니아·인스팅트 등 프리미엄 터치스크린폰을 지속적으로 선보인 것이 이 같은 좋은 성과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2억불탑-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디지털 사무환경 전문기업 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대표·김천주)은 2억불 수출탑과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은 안산에 생산시설을 갖추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김천주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2억불 수출의 탑과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고,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로 디지털 복합기를 자체 개발·생산하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셀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국내 기업에 모범이 되는 생산혁신을 이루었다. 이러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북미, 유럽, 동남아, 일본 등으로 복합기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약 60%의 수출 신장을 보였다.

수출주력기종은 'MF4000시리즈'로 국내 판매를 병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디자인과 양면인쇄, 자동원고 이송장치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장착,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였다. 또한 절전효과를 극대화한 온디맨드(On Demand)정착방식으로 소비자시문모임에서 주최하는 제12회 에너지 위너상에서 녹색기기 대기전력 부문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을 수상했고, 미국 최대의 IT잡지 "PC Magazine"이 선정한 우수사무기기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 수출 누적대수 200만대를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3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김천주 사장은 1982년 이 회사에 입사한 이래 생산 기술, IT부문, 생산관리, 기술연구소, 경영기획, 해외사업 등을 두루 거치고 2008년 2월 대표이사에 취임했으며, 26년 재임 기간중 10년간 경영기획 겸 해외사업 담당 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중기전략과 수출부문을 담당하면서 회사를 비약적으로 신장시켜 왔다. 특히 수출에서는 10년 사이에 200억에서 2000억으로 10배 이상 성장 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1억불탑-재영솔루텍(주)

금형 및 자동차, 휴대전화 부품 등을 생산하는 재영솔루텍(대표·김학권)은 '1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재영솔루텍은 2006년도 수출액 4800만 불에서 2007년



▶재영솔루텍의 김학권 회장

7000만 불, 2008년 1억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급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로 창사 32주년을 맞은 재영솔루텍은 일본에 금형수출을 시작으로 현재 38개 국에 금형을 포함하여 자동차부품, IT부품 등을 수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800만 화소의 고해상도 폰카메라의 핵심부품인 비구면 유리렌즈와 AF(자동초점) 모듈을 생산한다.

특히 이 회사는 IT 부품 수출액이 지난해 3분기까지 총매출액의 58%에 달하며 카메라 렌즈 등의 차세대 나노광학에 대한 연구 투자를 확대하는 등 신기술 응용사업에 대한 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KJ프리텍의 홍준기 사장

■7천만불탑-(주)KJ프리텍

초정밀 플라스틱 부품 기반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KJ프리텍(대표·홍준기)이 7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이 회사는 2005년 10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한 이후 불과 3년 만에 7배에 달하는 7000만 불 수출을 달성하여 기업을 토했다. 이처럼 짧은 기간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요인은 BLU라는 성장사업의 발굴과 집중 육성의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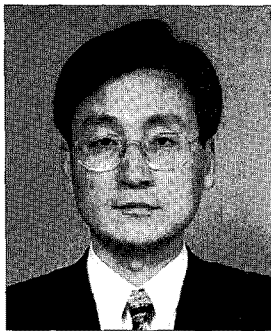
일본 주켄으로부터 전수받은 금형과 사출성형기술을 바탕으로 렌즈사업에 뛰어든 이 회사는 오랜 기간 코팅기술과 렌즈설계기술 확보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 부은 결과, 세계 최고급 금형 및 성형기술 전문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현재 특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초소형·초정밀 제품의 개발 및 양산을 하고 있다.

특히 축적된 기술력으로 BLU시장에 진입한 이후 BLU의 핵심기술인 도광판의 패턴 형성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하여 본래 한 달 이상 걸리는 BLU Sample 제작기간을 불과 1~2주로 단축시키면서 스피드가 중요시되는 휴대폰 시장에서 '돌풍'을 불러일으켰다.



KJ프리텍은 설립이후 연평균 61.6%의 고속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초정밀 금형가공기술을 바탕으로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기타 산업기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홍준기 사장은 "KJ프리텍은 금형을 필두로 정밀사출, 광학기술을 접목한 Ass'y 조립까지 일괄 시스템을 구현했다"며 "향후에는 회로기술의 접목을 통해 세계 최고의 초정밀 부품제조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창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오테크닉스의 성규동 사장

■5천만불탑-(주)이오테크닉스

반도체용 레이저 마킹기 제조업체 이오테크닉스(대표·성규동)가 5천만불탑을 수상했다.

이오테크닉스는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Multi-

beam 기술 등을 이용한 마커 등을 실 매출로 연결시키면서 무역의 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Multi-beam 마커는 물론 Wafer dicing, Micro SD Cutting 분야의 신규 장비 등이 매출 및 수출 신장에 기여했으며,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신규 에너지 시장인 솔라셀 시장에도 2008년 진입에 성공하여 미국 등지에 수출로 연결시켰다.

특히 Multi-beam 기술은 현대의 레이저에서 2~4개의 레이저가 분할되어 나오는 기술로 기존의 마킹 장비에 비해 생산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극대화 된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기술은 Marking기, Wafer Dicing 장비, Wafer back-side marking 장비 등에 다양하게 응용되어 이 회사의 새로운 수출 신장에 지대한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 관계자는 "Multi-beam을 이용한 제품은 Semi-Japan 및 i-SEDEX 등의 전시회에서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큰 호평과 관심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초의 레이저 장비 수출기업인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용 레이저 마커 분야에서 세계 1위 업체다. 현재 이 회사 반도체용 레이저 마커의 시장점유율은 국내 95%, 세계 50%로 안정적인 현금창출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오테크닉스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으로 레이저를 응용한 다양한 장비를 개발해 액정표시장치(LCD)나 인쇄회로기판(PCB) 등의 분야까지 신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80%를 넘었던 레이저 마커의 매출 비중은 지난해 말 46% 수준까지 떨어지고 2012년에는 30%대 초반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어려운 경기 속에 이러한 신 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그동안 구축한 다양한 레이저 응용기기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는 이오테크닉스가 향후 지속적으로 수출 분야에 지대한 공을 세울 수 있는 큰 기반이 될 것이다.



▶휴비츠의 김현수 사장

■2천만불탑-(주)휴비츠

안·광학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비츠(대표·김현수)가 이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김현수 사장은 수출 유공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휴비츠는 유럽을 위시한 선진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수출 호조로 지난 2001년

500만 불 수출의 탑, 2004년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받은 데 이어 2008년에는 2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게 됐다. 휴비츠는 수출이 전체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주력 업체이다.

김현수 사장은 "회사 설립 이후 줄곧 해외에서 경쟁한 덕분에 수출 유공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 같다"며 "지금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의 공포로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휴비츠는 회사 설립 이후 단 한번의 분기 적자도 기록하지 않은 저력 있는 회사다"며 "대외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금번 경기침체도 무난하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